

진안홍삼축제 '준비 착착'

군, 실무추진단 1차 회의... 세부 추진계획 보고, 개선·발전 방향 논의

진안군이 진안의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무추진단 1차 회의를 가졌다.

유근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각 실과소 팀장과 부읍면장 53명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별 실과소 팀장을 지정하여 계획 수립부터 진행까지 책임지고 운영된다.

이날 회의는 8개 분야 58개 프로젝

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진안군은 정기적인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별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계획이다.

이날 유근주 단장은 "전년도보다 더욱 발전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7 진안홍삼축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개최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진안군은 정기적인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별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계획이다.

이날 유근주 단장은 "전년도보다 더욱 발전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7 진안홍삼축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개최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애인식 개선 '꿈·사랑·드림콘서트' 개최

무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다채로운 공연

무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4일 무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꿈, 사랑, 드림콘서트를 개최했다.

무주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는 무주 관내 학생 및 교직원, 무주군민 등 500명이 관람하였으며 관내 지역민을 포함한 대국민 장애인식개선 사업으로 본 지역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지역 전체의 장애인식개선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콘서트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공연으로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공연팀의 창작무용, 마임매직, 피아노 연주, 수화무용 등 공연을 비롯하여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장애인식개선 퀴즈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캠페인 송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예술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확대하고 장애인들도 우수한 예술적 잠재능력을 지

니고 있음을 알아 장애학생의 보다 나은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개선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의 효과도 기대된다.

반정수 교육장은 "장애를 가진 출연진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비장애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여 차별과 배제가 아닌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자연스러운 장애인식개신효과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사경연대회' 개최 무진장 공병에 도지사상

무진장소방서는 지난 13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119수호선사 등 도민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강사 상호교류를 통한 강의기법 향상을 위해 '제1회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사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진장소방서는 지난 13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사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무진장소방서 계남여성의용소방대 공병에 대원은 "오늘 배워야 내가 살린다"라는 주제로 10분간 열띤 강의를 펼친 끝에 당당히 우수상을 차지하며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라북도에서 우수한 강사들이 대거 참가해 더욱 빛나는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일선 서장은 공병에 대원과 보조강사로 함께한 형제가, 최은주 대원에게 격려하였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심폐소생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상한 심폐소생술 강사는 학교, 기업, 각종 단체 등을 상

대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는데 전문강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수=고관호 기자



"태권도원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제1기 '태권도원 온라인 기자단' 11명 발대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은 태권도원과 태권도계 소식 등을 알리는 온라인 기자단을 운영한다.

재단은 지난 14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제1기 '태권도원 온라인 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5개월간 온라인 기자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를 통해 재단과 태권도원, 태권도계 소식 등을 온라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제1기 '태권도원 온라인 기자단'은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0대부터 40대까지의 대학생과 일반인 등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콘텐츠 기획 회의와 태권도원 온라인기자단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온라인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한 김인희씨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통해 성지로서의 태권도원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태권도원을 알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겠다"며 "태권도원의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고 온라인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온라인 기자단이 SNS에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온라인 기자단이 앞으로 재단과 태권도원을 비롯해 태권도계 전반의 소식을 신선한 시각으로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 장수중서 개최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고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가 지난 14일 장수중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18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 날 장수보건의료원(금연,구강,정신보건,자살예방,대사증후군),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한국미약퇴직운동본부,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풀잎문화센터,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무진

장소방서, 진안군자원봉사센터 등 13기관이 참여하여 시각장애체험, 보지아체험, 청소년심리검사 및 상담, 의약품 안전사용 바로알기,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청소년 보호법 알기, 전문자격증 강좌안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나눔을 약속해요 프리포도, 자원봉사센터 안내 등 청소년 자원봉사관련 정보 및 봉사활동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알리는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정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농협, 농촌 일손돕기 나선 학생들 격려

진안군의회와 NH농협 진안군지부는 지난 14일 진안군 안전면 노재마을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농촌사람봉사단 군산간호대 30여명을 찾아 위로 격려했다.

농촌사랑봉사단 군산간호대 학생 30여명은 극심한 가뭄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안전면 노재마

을에서 12~14일까지 포도 봉지 씌우기 작업 등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노재마을은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한 팜스테이 마을로 마을에서 재배한 포도를 포도따기 체험, 포도씨로 작품만들기, 포도 송편만들기, 천연염색 등의 체험을 통해 마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지역 소식통

장수 청소년통합지원 실행위 개최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일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필수연계 기관 및 단체 실무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CYS-Net 실행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급 위원회로서 연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장수 관내의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5세 남자청소년에 대한 사례회의를 토대로 진행, 위기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고 사례관리와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홍경숙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도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관내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위기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피서지 쓰레기 관리 나서

여름철 대표 관광지 무주군이 피서지 쓰레기 관리에 나섰다.

오는 8월 25일 까지 덕유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관내 유원지와 휴양림, 하천계곡 등 7곳에 청소차와 인력을 지원해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별도의 현수막과 경고판을 제작·부착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긴급수거반과 비상근무반, 단속반을 운영해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읍·면별로 별도의 대청결운동도 진행한다.

무주군 관계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내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고 구원동 계곡 등 하천과 계곡을 찾아오는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쉬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을 찾는 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내고 만족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관광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관내 150개소에 설치된 종합관광안내표지판과 관광유도표지판, 관광명칭표지판에 대한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안내판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의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행사문의
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